대한민국 명품 곡성멜론, 올해 첫 출하

서울·부산 지역 시작 오는 11월까지 유통

"깨끗한 환경·풍부한 일조량 고품질 비결"

올해 첫 곡성멜론이 5월 10일 서울과 부산 지역 시장을 대상으로 출하 소식을 알렸다.

이번에 출하되는 곡성멜론의 물량은 약 7톤 정도로 알려졌다. 첫 출하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 곡성멜론 특유의 향기와 높은 당도 덕에 인기가 높다. 멜론 재배 농가 A씨는 "섬진강변의 깨끗한 환경과 비옥한 토양, 풍부한 일조량이 고품질 곡성멜론의 비결이다."라며 출하의 기쁨을 밝혔다.

현재 곡성군에서는 327농가가 약 138ha에서 멜론을 재배하고 있다. 계획 생산,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를 통해 균일한 맛과 변함없는 품질, 안정적인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

덕분에 신세계, 롯데, AK백화점, 쿠팡 등 국내 대형 유통채널은 물론 싱가폴, 홍콩, 대만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이름을 알리고 있다.

2019년에는 8억 1천 9백만원을 수출했고, 지난해에는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중단과 수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도 5억이 넘는 수출 실적을 올렸다. 올해는 10억 원을 목표로 6월초부터 수출길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의 효자 상품인만큼 곡성군 유근기 군수는 10일 출하 현장을 찾아 유통현장을 살피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곡성멜론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공동선별비, 유통물류비, 수출물류비, 포장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담양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확대 추진…농가경쟁력 확보

인증절차 비용 전액 지원

담양군이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을 통해 GAP인증 농가 확대를 추진한다.

GAP란 'Good Agricultural Practices(농산물우수관리)'의 약자로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수확, 포장, 유통,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등 유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통한 농산물에 대해 전문인증기관이 인증한 제도이다.

군은 지원사업으로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제반수수료 비용(개인 GAP인증수수료 13만 원 한도, 단체는 전액 지원), 토양·수질·잔류농약 등의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비, 토양·용수분석 비용에 들어가는 25만 원 전액을 지원한다.

또 한 올해 군자체적인 사업으로 인증을 받은 소규모농가에 'GAP 생산농가 스티커 제작을 지원해 일반농산물 생산농가와의 차별화와 인증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남송 친환경유통과장은 "GAP 농산물은 철저한 검증과 인증을 통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적인 농산물이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한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확대로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영어지원 바우처 2차 접수

21일까지 양식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

화순군은 코로나 19가 장기화에 따른 외식 수요 급감 등으로 출하 감소 등의 피해를 본 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2차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양식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지원 대상 품목을 양식한 어가다.

소득세 신고 서류 등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를 입증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 매출액이 0원인 경우도 매출 감소로 간주해 지원 가능하다.

2019년과 2020년 연간 매출액의 객관적 비교가 어려울 때는 신청인 본인의 연평균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연평균 판매단가가 감소했으면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지원 대상 품목은 민물장어, 메기, 송어, 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등 총 15개 어종이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가는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등 각종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요건 및 매출감소 요건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양식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은 자격 요건과 매출감소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어가에 6월 14일부터 수협 선불카드 100만 원(50만 원권 선불카드 2매)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식에 필요한 물품, 생필품 등 구매에 사용 가능하며 9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1차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원 대상 어가들은 2차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지원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061-379-3647)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구례군, 위생업소 비대면 체온계 설치지원

총사업비 2천만원… 식당·카페 등 109개소 115대

구례군은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고자 지역 내 식당·카페,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체온계 겸용 자동 손소독기 설치를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군비 2천만원을 들여 식품·공중위생업소 109개소에 115대 설치를 지원했다. 각 업소가 기기가격의 50%를 자부담했다.

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위생업소 영업주의 소독기 구입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관광객 등 이용자 발열 체크, 손 소독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안전한 위생환경조성 및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안심식당 지정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 △식품접객업소 포충기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장성군, 풍년 위한 영농철 농가 '집중 관리'

기후변화 대응 위한 못자리 적기 설치·육묘관리 철저 당부

장성군이 지난달 말부터 모내기를 시작함에 따라, 본격적인 영농철 대응에 나섰다.

최근,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내 농업인들에게 못자리 적기 설치와 육묘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육묘 기간 중 이상 저온 또는 고온이 발생하면 뜸묘, 입고병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자 쌓기 및 녹화기에 주야간 10~25℃ 이내로 일정하게 온도를 관리해야 한다.

또 종자 파종 시에는 밀파(씨앗을 빈틈없이 뿌림)를 해서는 안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철저한 못자리 관리로, 올해에도 고품질 쌀을 생산하겠다"면서 "각종 필요 농자재와 병해충 적기 공동방제 등 체계적인 농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장성군의 첫 모내기는 지난 4월 29일로, 서삼면 송현리 김민수 씨가 그 주인공이었다. 이날, 김 씨는 0.2ha 규모로 조명1호 품종을 이앙(모를 못자리에서 논으로 옮겨 심음)했다.

조명1호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고품질 조생품종이다. 밥맛이 좋고 병충해에 강한 품종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키가 작아 비바람에 쓰러지는 일이 적어, 농업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장성군은 조명1호와 새청무를 2021~2022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선정, 올해 전남 쌀 생산 목표량인 10아르(a)당 500kg 수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드문모심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현장기술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드문모심기는 단위면적 당 육묘상자 수를 줄여주는 재배 기술이다.

기동취재본부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 균 〈 도문대작 〉